

어려서 벗은 몸이나 커서 벗은 몸이나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㉓ 모친 위한 해탈 법문

하루는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법문을 한다고 대중을 불러 모았다.

“우리 어머니를 모셔 오도록 하라.”
시자는 스님의 뜻을 연만한 할머니께 전하며, 큰스님으로 존경받는 아드님의 법회에 가시기를 청했다. 모친 되시는 할머니 또한 희색이 만연해 웃을 갈아 있고 대중이 모인 큰 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며 정성을 다해 경의를 표하고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우리 경허가 나를 위해 법문을 설한다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하며 특별 법문을 청했다.

이에 스님은,
“저래 가지고 어찌 남의 어머니 노릇을 한단 말인가. 내가 아주 어려서는 이 몸을 벗겨버겨 씻기며 안고 빨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세상 풍속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군”하고 짐짓 쓴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스님의 모친은 노발대발해 “그래, 나를 위해 법을 설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이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하고 탄식하며 좀처럼 노기를 풀지 않았다. 대중이 전부 물러가서 아뢰었다.
“할머니, 그게 바로 스님의 큰 법문이랍니다. 특별 설법이였어요. 그러니, 어서 노여움을 푸십시오”하고 거듭 빌어야 했다.

㉔ 별 드나드는 콧구멍

하루는 경허 스님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만공 스님이 스님에게 던지시 물었다.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경허 스님이 물었다. “왜 그런가?”
경허 스님이 되물은 즉 만공 스님이 대답했다.
“별들이 저의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라고 그러합니다.”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을 나무랐다.
“이 사람아, 별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만공 스님은 한 마디 자기의 견해를 과시해 보려고 했으나, 조작된 망상임을 느꼈다. 스님은 경허 스님의 자연스러운 지적에 깊이 깨우쳤다.

㉕ 무하향의 경지

경허 스님이 만년 10년 가까이 떠돌며

보내던 열반지는 북녘 땅 끝 함경도 갑산·강계 지방 일대였다.

회갑 노년기의 스님이 강계 땅 장뚜루벌을 지나던 때는 1905년 무렵 어느 날이었다.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의 시골 선비 담여 김탁은 경허 스님보다 3살 아래인 54세였다. 지방유지였던 김탁은 마침 고향 마을에서 10여 리 거리에 있는 장뚜루벌에 와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속인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라 보기도 어려운 한 초로의 늙은이를 에워싸고 물매를 갈기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이런 놈의 영감은 죽여도 그만이야! 나쁜 영감태기 같은나루구.”
청년들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했다. 김탁은 시끄러운 고향 소리에 무슨 일인

만공 스님 망상에 따끔한 지적

유생 행세하던 경허 스님

대자유인으로 유유자적

고향·타향·차안·피안 구분없네

가 싶어 거리로 나와봤다. 이유인즉슨 아내를 희롱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팔필 뛰는 것이었다. 김탁은 청년들의 본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의 무지막직한 폭행부터 뜯어말렸다. 김탁 덕분에 경허 스님은 청년들로부터 봉변을 그칠 수 있었다.

이 때였다. 스님이 김탁에게 도리어 목청을 높이는 것 아닌가.

“미친 놈이,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걸이나 갈 것이지, 패섬하구나! 네 이놈, 이 고안 놈 같으니라고! 너는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찌 사자씨름이나 하며 쓸데 없는 참견을 하러 드는고?”



그림·박구원

세상풍속도 마음따라 달라 어려서 예쁜 것 커서 싫다니 경허 스님 어머니 노기는 특별 법문에 대한 상놀음

그 때 스님은 잠자코 앉아 있다가 어찌된 셈인지 어머니를 맞이해 부시러부시러 웃을 벗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완전히 벗겨 벗은 알몸이 되자,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하고 그대로의 나신(裸身)을 보였다. 그 어머니는 무슨 심오한 설법을 자기를 위해 해줄 줄로만 알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해괴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노했다.

“대체 무슨 법문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나? 별 발칙한 짓도 다하는구나!”

할머니는 법석을 박차고 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길을 걸으며 경허 스님과 김탁은 법담을 나눴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 새는 줄 모르고, 그 날 밤을 밝히며 스님의 일거일동(一舉一動)에 도취해 버린 담여 김탁은 유생 박난주로 행세하는 경허 스님을 꺾듯이 받아들여 모셨다.

경허 스님은 그 집에 머물며 정성들여 옷시중을 하는 김탁의 부인 박씨를 계수처럼 부르며 한 집안 식구로 지냈다.

어느 날, 스님은 박씨에게 “계수님은 여기 강계에서만 살 분이 아니고, 장차 충청도 수덕사 혹은 천장암 근처로 가서 살 것 같소이다”는 예언도 했다.

김탁의 집에서 스님은 졸곧 유생 박난주로 행세하며 마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경허 스님은 그 일대 도처에서 거침 없는 시흥(詩興)을 돋구면서 대자유인으로 유유 자적하는 나날을 보냈다.

경허 스님이 이 때 들은 시가 여러 수 전한다. 이 가운데에는 김탁과 술자리에서 들은 시는 7언 율시로 돈의 이상향이라 할 ‘무하향(無何鄉)’의 경지가 도도하다. 고향이니 타향이니 하는 구분은 물론 구태여 차안(此岸)이다 피안(彼岸)이다 하는 구분도 없는 선객의 가풍 또한 여실하다.
구성=조동성 기사 cetana@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삼출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원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던졌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열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함께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뒤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함께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를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